

유란시아서

<< [제 72 편](#) | [부분](#) | [내용](#) | [제 74 편](#) >>

제 73 편

에덴 동산

73:0.1 (821.1) **칼리가스티아**가 패망하고 그에 따라 사회가 혼란해져서 생긴 문화적 퇴폐와 영적 빈곤은 **유란시아** 민족들의 육체적 상태, 곧 생물학적 상태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. **칼리가스티아**와 **달리가스티아**의 불만을 뒤이어 그렇게 빨리 생긴 문화 및 도덕의 후퇴와 아주 상관없이, 유기적 진화는 빠른 걸음으로 진행되었다. 그리고 행성의 역사에서 거의 4만 년 전에, 순전히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, **유란시아** 민족들의 발전이 절정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근무하던 **생명 운반자**들이 주목한 때가 왔다. **멜기세덱** 행성 관리자들은 이 의견에 찬성하면서, **에덴시아**의 **최고자**들에게 **생명 운반자**들과 함께 탄원을 드리자고 쉽게 찬성했고, 이 탄원은 생물학적 개량자, 곧 **물질 아들**과 **딸**의 파송을 허가할 목적으로 **유란시아**를 검열할 것을 요청하였다.

73:0.2 (821.2) 이 요청은 **에덴시아**의 **최고자**들에게 올린 것이었고, 이는 **칼리가스티아**가 몰락하고 **예루셈**에서 권력이 일시 자리를 비운 뒤로 늘, 그들이 **유란시아**의 많은 사무에 대하여 직접 관할권을 전에 행사했기 때문이다.

73:0.3 (821.3)

십일(十一) 세계, 곧 실험 세계 시리즈를 감독하는 군주 **타바만시아**가 행성을 검열하려고 왔고, 종족의 진전을 살핀 뒤에, 그는 **유란시아**에 **물질 아들**들을 보내 줄 것을 정식으로 추천했다. 이 검열이 있는 지 1백 년이 채 안 되어, **아담**과 **이브**, 곧 지역 체계의 **물질 아들**과 **딸**이 도착했고, 반란으로 뒤에 처지고 영적으로 고립시키는 금지령의 지배 하에 있는 한 행성에서, 혼란에 빠진 일의 실마리를 풀려고 애쓰는 어려운 과제를 시작했다.

1. **놏** 족속과 **아마돈** 족속

73:1.1 (821.4)

정상(正常) 행성에서 **물질 아들**이 도착하는 것은 보통, 발명과 물질적 진보와 지적 깨우침이 있는 중대한 시대가 다가옴을 알릴 것이다. 대부분의 세계에서 **아담** 이후 시대는 대단한 과학 시대이지만, **유란시아**에서는 그렇지 않았다. 육체적으로 건강한 종족들이 행성에 살았지만, 부족들은 야만스럽고 도덕적으로 침체된 늪에서 시들고 있었다.

73:1.2 (821.5)

반란이 있는 뒤 1만 년이 되자, **영주**의 행정부가 쌓아 놓은 공적이 실질적으로 다 지워져 버렸다. 세상의 종족들은 잘못 인도된 이 **아들**이 오지 않은 경우보다 형편이 조금도 낫지 않았다. 겨우 **놏** 족속과 **아마돈** 족속 사이에서, **달라마시아**의 전통과 **행성 영주**의 문화가 지속되었다.

73:1.3 (821.6)

놏 족속은 **영주**의 참모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분자들의 후손인데, 그 이름은 그들의 처음 지도자 **놏**에서 유래하며, 그는 한때 **달라마시아**의 산업 및 무역 위원회의 의장이었다. 아마돈 족속은 **반**과 **아마돈**과 함께 충성하기로 작정한 **안돈** 족속의 후손이었다. “**아마돈**

족속”은 종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보다 문화 종교적 명칭이다. 종족 면에서 볼 때, **아마돈** 족속은 본질적으로 **안돈** 족속이었다. “**놏** 족속”은 문화와 종족을 가리키는 용어인데, **놏** 족속 자체가 **유란시아**의 여덟째 종족을 이루었기 때문이다.

73:1.4 (822.1) **놏** 족속과 **아마돈** 족속 사이에는 전통적 적대 관계가 존재했다. 이 싸움은 이 두 집단의 자손이 어떤 공동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항상 표면에 나타났다. 나중에도 **에덴 동산**의 사무에서, 그들이 평화롭게 함께 일하기는 대단히 힘들었다.

73:1.5 (822.2) **달라마시아**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되어, **놏**의 추종자들은 세 주요 집단으로 갈라졌다. 중앙 집단은 **페르시아** 만 상류 가까이에 그들 최초의 집, 바로 근처에 남아 있었다. 동쪽 집단은 **유프라테스** 강 유역의 바로 동쪽에 **엘람**의 고지(高地) 지역으로 옮겨 갔다. 서쪽 집단은 지중해에 **시리아**의 동북 바닷가에서, 그리고 인접한 영토에서 자리를 잡았다.

73:1.6 (822.3) 이 **놏** 족속은 **산각** 종족들과 자유롭게 짝을 짓고 유능한 후손을 남겼다. 그리고 모반한 **달라마시아** 사람들 후손 중에 더러는 나중에 **메소포타미아** 북쪽의 땅에서 **반**과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합쳤다. 여기서, **반** 호수와 **카스피** 바다 남쪽 지역 근처에서, **놏** 족속은 **아마돈** 족속과 섞이고 사귀었으며, 그들은 “옛날의 강한 사람들” 축에 끼었다.

73:1.7 (822.4) **아담**과 **이브**가 도착하기 전에 이 무리 — **놏** 족속과 **아마돈** 족속들 — 은 땅에서 가장 진보하고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었다.

2. 동산을 짓는 계획

73:2.1 (822.5) **타바만시아**의 검열이 있기 전에 거의 1백 년 동안, **반**과 그 동료들은, 고지에 있던 본부, 세계의 윤리 · 문화의 본부로부터, 약속된 **하나님의 아들**, 곧 종족 개량자, 진실을 가르치는 선생, 반역한 **칼리가스티아**의 뒤를 이을 자격 있는 후계자가 오리라 외치고 있었다. 그 시절에 세계 거주자의 대다수는 그러한 예언에 거의 또는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, **반**과 **아마돈**과 가까이 접촉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, 약속된 **아들**을 실제로 영접하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.

73:2.2 (822.6) **반**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**예루셈**에 있는 **물질 아들**들의 이야기, 일찍이 **유란시아**에 오기 전에 그 **아들**들에 관하여 알고 있던 것을 일러주었다. 수수하지만 매력 있는 **동산**의 집에서 이 **아담 아들**들이 늘 살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고, **아담**과 **이브**가 도착하기 83년 전에, 그들이 오리라 선포하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**동산** 집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제안했다.

73:2.3 (822.7) 그들의 고지 본부로부터, 또 멀리 흩어져 있는 61개 촌락으로부터, **반**과 **아마돈**은 기꺼이 일하고 싶은 열심 있는 노동자 무리를 3천 명이 넘게 모집했고, 이들은 엄숙한 집회에서, 약속된 — 적어도 기대하던 — **아들**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였다.

73:2.4 (822.8) **반**은 자원자들을 1백 중대(中隊)로 나누었고, 각 중대에는 중대장 하나, 그리고 자신의 개인 참모진에서 연락 장교로 일했던 부관 한 명을 두고, **아마돈**을 자신의 부관으로 두었다. 이 위원회들은 모두 진지하게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, **동산**을 마련하는 장소 위원회는 이상적인 자리를 찾아서 힘차게 떠나갔다.

73:2.5 (822.9) **칼리가스티아**와 **달리가스티아**는 나쁜 일을 하는 힘을 많이 빼앗겼어도, **동산**을 준비하는 일을 좌절시키고 방해하려고, 할 수

있는 대로 무엇이든지 했다. 그러나 그들의 악한 음모는 그 사업을 진척시키려고 지칠 줄 모르고 노동한, 거의 1만 명의 충성스러운 중도인(中道人)이 성실하게 활동함으로 대체로 상쇄되었다.

3. 동산의 위치

73:3.1 (823.1) 장소 위원회는 거의 3년 동안 자리를 비웠다. 이 위원회는 가능한 세 장소에 관하여 적당하다고 보고했다. 첫째는 **페르시아** 만(灣)에 있는 섬이었고, 둘째는 나중에 둘째 **동산**으로서 차지했던, 강가의 자리였고, 셋째는, 지중해의 동쪽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튀어나온 길고도 좁은 반도(半島)였다 — 거의 섬이었다.

73:3.2 (823.2) 그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셋째 장소를 선호했다. 이 자리가 선택되었고, 이 지중해의 반도로, 생명나무를 포함하여 세계의 문화 본부를 옮기는 데 2년이 걸렸다. **반**과 그 일행이 도착했을 때, 반도에서 거주하던 자들 중에서 한 집단만 빼고 모두가 싸우지 않고 자리를 비웠다.

73:3.3 (823.3) 이 지중해의 반도는 상쾌한 기후를 가졌고 기온이 따듯했다. 이 안정된 날씨는 둘러싼 여러 산 때문에, 그리고 이 지역이 내륙의 바다에서 실질적으로 섬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. 둘러싼 고지(高地)에서 비가 풍부하게 쏟아졌지만, **에덴** 자체에는 비가 내리는 일이 드물었다. 그러나 밤마다 인공으로 관개하는 광범위한 수로(水路)의 망으로부터 “안개가 올라와서” **동산**의 식물을 적셔 주었다.

73:3.4 (823.4) 이 땅 덩어리의 해안선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었고, 본토와 연결하는 목에서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겨우 43킬로미터였다.

동산에 물을 대는 큰 강은 반도의 고지로부터 내려와서, 본토에 이르는 반도의 목을 거쳐서 동쪽으로, 그리고 거기서부터 **메소포타미아**의 낮은 땅을 거쳐서 그 너머에 바다로 흘러갔다. 그 강은 **에덴** 반도의 바닷가의 산에서 기원을 가진 네 개의 지류(支流)에서 물을 받았는데, 이것들이 “**에덴**에서 나간” 강의 “네 수원(水源)”이며, 이것은 나중에 둘째 **동산**을 둘러싸는 강들의 지류와 혼동되었다.

73:3.5 (823.5) **동산**을 둘러싸는 여러 산에는 귀중한 돌과 금속이 많았다. 하지만 이것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. 지배적인 생각은 원예를 높이고 농업을 찬양하는 것이었다.

73:3.6 (823.6) **동산**으로 선택된 장소는 아마도 온 세상에서 그 종류로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였고, 기후는 당시에 이상적이었다. 다른 어디에도 그렇게 식물(植物)로 천국을 표현한 곳이 되도록 아주 완전히 적합한 장소가 없었다. 이 장소에서 **유란시아** 문명의 노른자가 모이고 있었다. 바깥에, 건너편에, 세상은 어두움과 무지와 야만 속에 놓여 있었다. **에덴**은 **유란시아**에서 하나의 밝은 장소였고, 자연히 사랑받는 꿈 같은 곳이었으며, 곧 아름답고 완전해진 경치의 영화로움을 표현하는 시(詩)같은 곳이 되었다.

4. 동산을 세우다

73:4.1 (823.7) 생물학적 개량자인 **물질** 아들이 한 진화 세계에서 머무르기 시작할 때, 그들의 거처를 흔히 **에덴 동산**이라고 부르는데, 이것은 별자리의 수도 **에덴시아**의 특징, 꽃이 아름답게 피고 식물이 화려한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. **반**은 이 관습을 잘 알았고, 따라서 반도(半島) 전체를 **동산**에 넘겨주도록 주선했다. 인접한 본토를

위하여 목장과 동물 사육이 계획되었다. 동물 생명 가운데 새와 다채로운 길들인 종자들만 공원에서 보였다. 반의 지시는 **에덴이 동산**, 오로지 **동산**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. 그 구역 안에서는 결코 아무 동물도 죽이지 않았다. 건축하는 여러 해 동안 내내, **동산**의 일꾼들이 먹는 고기는 다, 본토에서 지키고 유지하는 동물의 떼로부터 가져왔다.

73:4.2 (824.1) 첫 과제는 반도의 목 부분에, 가로질러서 벽돌 담을 세우는 일이었다. 이것이 일단 끝나자, 경치를 아름답게 만들고 집을 짓는 진짜 일을 방해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다.

73:4.3 (824.2) 동물이 있는 **동산**은 큰 담 바로 바깥에, 그보다 작은 담을 쌓아서 만들었다. 그 사이의 공간은 온갖 종류의 들짐승이 차지했고,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추가된 방어로 쓰였다. 이 동물원은 12 대부분으로 조직되었고, 담으로 둘러싸인 길은 이 여러 집단 사이로부터 **동산**의 12 대문(大門), 강, 그리고 중앙 지역을 차지하는, 강에 인접한 목초지로 인도했다.

73:4.4 (824.3) **동산**을 준비하는 일에 오직 자원하는 노동자만 사용되었다. 임금(賃金)을 받는 노동자는 하나도 결코 쓰이지 않았다. 그들은 **동산**을 가꾸고, 자신을 부양하기 위하여 동물의 떼를 돌보았다. 가까이 있는 신자(信者)들로부터 식량의 기부도 받았다. 이 어수선한 시절에, 세상의 혼란 상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, 이 큰 사업은 마치기까지 계속되었다.

73:4.5 (824.4) 그러나 기대하던 **아들과 딸**이 얼마나 빨리 올지 모르고, 그들의 도착이 늦어질 경우에 젊은 세대도 또한 그 사업을 계속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반이 언지시 비쳤을 때, 이것은 큰 실망의 원인이 되었다. 이것은 반의 편에서 믿음이 모자람을 인정하는 듯했으며, 어지간히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탈주자가 생기게 만들었다.

그러나 **반**은 준비하는 계획을 수행하였고, 그동안에 탈주자들의 자리를 더 젊은 자원자로 채웠다.

5. 동산의 집

73:5.1 (824.5) **에덴** 반도 한가운데, 돌로 만든 **우주의 아버지**의 아름다운 성전, **동산**의 성소(聖所)가 있었다. 북쪽에는 행정 본부가 세워졌고, 남쪽에는 일꾼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집들이 건축되었다. 서쪽에는 제안된 대로 기대하는 **아들**의 교육 체계의 학교들을 위하여 땅이 할당되었고, 한편 “**에덴**의 동쪽”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 직계 후손을 위하여 예정된 거처가 세워졌다. **에덴**을 건축하는 계획은 인간 1백만 명을 위하여 집과 넓은 땅을 마련해 놓았다.

73:5.2 (824.6) **아담**이 도착했을 때, **동산**이 겨우 4분의 1이 끝났어도, 거기에는 몇천 킬로미터나 되는 관개하는 도랑과 19,000킬로미터가 넘는 포장된 보도(步道)와 도로가 있었다. 여러 구역에 5천 동(棟)이 조금 넘는 벽돌 건물이 있었고, 나무와 식물은 거의 셀 수 없이 많았다. 공원(公園)에 있는 어느 주택 집단이라도 집의 수는 기껏해야 일곱이었다. 그리고 **동산**의 구조물은 수수했어도, 무척 예술적이었다. 도로와 작은 길은 잘 지어졌고, 주위 풍경은 아름답게 꾸며졌다.

73:5.3 (824.7) **동산**의 위생 시설은 그때까지 **유란시아**에서 시도한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. **에덴**의 마실 물은 정결함을 보존하려고 고안된 위생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 건강에 좋게 유지되었다. 이 옛 시절에 많은 문제가 이 규칙을 소홀히 하여 생겨났지만, **반**은 **동산**의 수원(水源)에 아무것도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동료들에게 차츰차츰 강조하였다.

73:5.4 (825.1) 하수도를 처리하는 체계가 나중에 세워지기 전에 **에덴** 사람들은 모든 쓰레기나 썩는 물질을 꼼꼼히 파묻는 관습을 지켰다. **아담**의 검열자들은 날마다 질병의 있음직한 원인을 찾느라고 순찰했다. **유란시아**인은 후일에 19세기와 20세기까지, 다시는 인간의 병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지 못했다. **아담**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, 땅에 파묻은 벽돌 파이프로 하수(下水) 처리 체계가 건설되었고, 이것은 담 밑으로 이어져서, **동산**의 바깥 담, 곧 작은 담을 거의 1.6킬로미터 지나서, **에덴**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.

73:5.5 (825.2) **아담**이 도착할 때가 되기까지, 세상에서 그 구역에 있는 식물의 대부분은 **에덴**에서 자라고 있었다. 많은 과실 · 곡식 · 견과가 이미 크게 개량되었다. 현대의 못 채소와 곡식이 여기서 처음 재배되었지만, 몇십 종류의 먹는 식물(植物)이 나중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.

73:5.6 (825.3) **동산**의 약 5퍼센트는 고도의 인조(人造) 재배 기술로 경작하였고, 15퍼센트는 일부 경작되었으며, 나머지는 **아담**이 도착할 때까지 얼마큼 자연 상태로 놓아두었는데, 그의 생각에 따라서 공원을 완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.

73:5.7 (825.4) 그래서 **에덴 동산**은 약속된 **아담**과 그 배우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. 그리고 이 **동산**은 완전하게 관리되고 정상으로 통제 받는 가운데 한 세계에 큰 영예가 되었을 것이다. **아담**과 **이브**는 **에덴**의 일반 계획을 아주 기뻐했다. 하지만 그들 자신의 거처를 꾸미는 일에 많이 손을 보았다.

73:5.8 (825.5) **아담**이 도착했을 때 치장 작업은 도저히 끝났다고 할 수 없어도, 그 곳은 이미 아름답게 식물로 장식되어 보석과 같았다. **아담**이 **에덴**에서 머무르던 옛 시절에 **동산** 전체가 새로운 모습을 입었고, 새 규모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갖추었다. 이 시절 이전이나

이후에 결코 **유란시아**는 그렇게 원예와 농업을 아름답고 충만하게 펼쳐 보인 적이 없었다.

6. 생명나무

73:6.1 (825.6) **동산**의 성전 가운데에 **반**은 오랫동안 지켜 오던 생명나무를 심었고, 그 이파리는 “민족들을 치유하기” 위한 것이었는데, 그 과일은 **반**으로 하여금 그렇게 오랫동안 땅에서 버티게 해주었다. 일단 **유란시아**에서 물질 형태를 입고 나타난 뒤에, **아담**과 **이브**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**에덴시아**의 선물에 의존할 것을 **반**은 잘 알았다.

73:6.2 (825.7) 체계 수도에 있는 **물질 아들**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필요하지 않다. 오직 행성에서 다시 인격화되었을 때, 그들은 육체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첨가물에 의존한다.

73:6.3 (825.8) “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”는 비유적 표현, 잡다한 인간의 체험을 가리키는 상징적 이름일지 모르지만, “생명나무”는 신화(神話)가 아니었다. 생명나무는 실재하였고, 오랫동안 **유란시아**에 있었다. **에덴시아**의 최고자들이 **칼리가스티아**를 **유란시아**의 **행성 영주**로, 또 **예루셈** 시민 1백 명을 그의 행정 참모진으로 임명하는 것을 인가했을 때, **멜기세덱**들 편에 **에덴시아**의 한 떨기나무를 행성으로 보냈고, 이 식물은 **유란시아**에서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었다. 이 형태의 지능 없는 생명은 별자리 본부 구체의 토산물이며, **하보나** 구체들만 아니라 지역 우주와 초우주의 본부 세계에서 또한 발견되지만, 체계의 수도에는 없다.

73:6.4 (826.1)

이 초월 식물은 동물 존재에서 나이를 먹게 하는 요소를 해독(害毒)하는 어떤 공간 에너지를 저장했다. 생명나무의 열매는 비화학 방법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전지(電池)와 같았고, 먹었을 때 우주에서 생명을 늘이는 힘을 신비하게 방출하였다. 이 형태의 자양분은 **유란시아**에 있는 보통의 진화 존재에게 온전히 쓸모 없었지만, 특별히 **칼리가스티아** 참모진의 물질화된 구성원 1백 명, 그리고 **영주** 참모진에게 생명질을 기여한 수정된 **안돈** 족속 1백 명에게 쓸모가 있었다. 이 **안돈** 족속도 그 대가로 그 생명 보충물을 소유하게 되었고, 이것은 달리 죽어야 할 존재를 무기한으로 더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과일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.

73:6.5 (826.2)

영주가 다스리던 시절에 그 나무는 **아버지**의 성전에, 가운데 있는 둥그런 뜰에서, 땅에서 솟아나 자라고 있었다. 반란이 터지고 나서, **반**과 그 동료들은 임시 캠프에서 그 나무를 가운데 핵심으로부터 다시 길렀다. 이 **에덴시아** 떨기나무를 나중에 그들의 고지 피난처로 가져갔고, 거기서 그 나무는 **반**과 **아마돈**에게 15만 년이 넘도록 쓰였다.

73:6.6 (826.3)

반과 그 동료들은 **아담**과 **이브**를 위해서 **동산**을 준비했을 때 **에덴시아**의 나무를 **에덴 동산**으로 옮겨 심었으며, 거기서 다시 한번 그 나무는 **아버지**를 예배하는 또 다른 성전의 가운데에, 둥그런 뜰에서 자랐다. **아담**과 **이브**는 그들의 이중 형태의 육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열매를 정기적으로 먹었다.

73:6.7 (826.4)

물질 아들의 계획이 빛나갔을 때, **아담**과 그의 가족은 그 나무의 핵심을 **동산**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. **늦** 족속이 **에덴**을 쳐들어갔을 때, “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” 되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. 아주 놀랍게도 그들은 아무도 그 나무를

지키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. 그들은 몇년 동안 그 과일을 아낌없이 먹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. 그들이 모두 그 땅의 물질 필사자였기 때문이다. 그 나무 열매의 보충물 노릇을 하는 성분이 그들에게 모자랐다.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혜택을 얻을 수 없어서 성이 낫고, 그들의 한 내란과 연관되어, 성전과 나무는 모두 불에 타버렸다. **동산**이 나중에 물에 잠길 때까지 오로지 돌담만 남아 있었다. 이것이 두 번째로 파괴된, **아버지**의 성전이었다.

73:6.8 (826.5) 이제 **유란시아**에서 모든 육체는 살다가 죽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. **아담**과 **이브**, 그 자녀와 손자들은 동료들과 함께, 시간이 지나자 모두 죽었다. 따라서 그들은 지역 우주의 승천 계획에 지배를 받았고, 그 계획에는 육체가 죽고 나서 저택 세계의 부활이 뒤따른다.

7. 에덴의 운명

73:7.1 (826.6) **아담**이 첫째 **동산**을 비우고 난 뒤에, 다양하게 **놏** 족속, **쿿** 족속, **순트** 족속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. 나중에 **동산**은 **아담** 족속과 협조하는 데 반대한 북쪽 **놏** 족속의 거처가 되었다. **아담**이 **동산**을 떠난 뒤에, 그 반도(半島)에는 거의 4천 년 동안 이 낮은 등급의 **놏** 족속이 들끓었다. 이때 둘러싼 화산들의 맹렬한 활동과 **시실리**를 **아프리카**로 잇는 육지 다리가 가라앉는 것과 관련하여, 지중해의 동쪽 바닥이 무너졌고, **에덴** 반도 전체를 바다 밑으로 끌고 갔다. 이 광범위한 침몰과 동시에 동부 지중해의 해안선이 크게 높아졌다. 이것이 **유란시아**가 일찍이 품에 간직했던 가장 아름다운, 자연의

창작품의 마지막이었다. 이 침몰은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았고, 반도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몇백 년이 걸렸다.

73:7.2 (827.1) 우리는 **동산**이 이렇게 사라진 것을 어떤 면에서도 신성한 계획이 유산(流産)된 결과라거나 **아담**과 **이브**가 실수한 결과라고 여길 수 없다. 우리는 **에덴**이 가라앉은 것을 자연 현상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. 그러나 우리에게서 세계 민족들을 회복하는 일에 착수하기 위하여 보라 인종의 비축 인구가 축적되었을 바로 그 무렵에 맞추어서, **에덴**이 가라앉는 일이 생긴 듯이 보인다.

73:7.3 (827.2) **멜기세덱**들은 **아담**에게, 그 자신의 가족이 50만이 될 때까지, 종족을 개량하고 혼합하는 순서를 개시하지 말라고 조언했다. **동산**이 결코 **아담** 족속의 영구한 집이 되라고 의도하지는 않았다. 그들은 온 세상에 새 생명의 밀사(密使)가 되도록 정해져 있었다. 땅에서 곤궁한 종족들에게 사심 없이 수여되기 위해서 동원될 예정이었다.

73:7.4 (827.3) **멜기세덱**들이 **아담**에게 준 지침은, 그의 직계 아들딸을 책임질 종족 본부, 대륙 본부, 분과 본부들을 세워야 하며, 한편 그와 **이브**는 생물학적 개량, 지적 진보, 도덕의 회복, 이러한 세계적 직책을 맡는 고문이자 조정자로서, 세상의 이 다양한 수도(首都)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써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.

73:7.5 (827.4) [“**동산**의 목소리” 천사 **솔로니아**가 발표했다.]